

코끼리 밧줄 끊기

‘이름없는 주드’ 를 통해 본 토마스 하디가 제시한 여성주의의 한계

문화콘텐츠학과 20172*****

강태윤

-목차-

1. 서론

1) 토마스 하디의 가치관과 여성주의

2. 본론

1) 수를 통해 드러나는 하디의 한계

2)아라벨라를 통해 드러나는 하디의 한계

3. 결론

1. 서론

1) 토마스 하디의 가치관과 여성주의

토마스 하디는 사회적 제도와 성적 인습에 저항하는 작품을 그려낸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름없는 주드’ 를 통해 우리는 그의 제도와 관습에 대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담론은 소설의 주요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하디가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디는 소설 속 인물 ‘수’ 를 통해 결혼을 거부하고 남녀 간의 자유로운 결합을 선호하는 신여성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기도서에 적혀있는 결혼식에 관한 글을 읽고 있는데 신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에요. 거기 적힌 식대로 하면 신랑이 스스로, 그리고 기꺼이, 날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그에게 주는 거래요. 마치 암나귀나 암염소나 또는 다른 가축을 다른 사람에게 주듯이 말이에요.” (토머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1』 믿음사, 2013, 300쪽)

수는 여성의 선택권이 없다고 적힌 기도서를 관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조리하다고 주장하며 가부장적 사회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사회제도는 결혼 뿐만 아니라 노동, 정치의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그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의 가치관은 당시 사회의 여성들이 추구하는 여성주의 운동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수는 남성을 이성적 존재 보다는 연대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대학생과의 동거를 지식 교환의 기회로 삼았으며, 일말의 성적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필롯슨과의 결혼 또한 이성적 사랑의 계약이기 보다는 필롯슨이 ‘동료로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사회 연대를 ‘이성애’로 인한 혼인 사회로 생각해 온 기존의 관념에 반하는 입장이다. 이 기존의 관념은 이분법적으로 구분 지은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 생겨났다. 예로부터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단어로 성 역할을 구분했으며 이는 이성적이고 우월한 남성이 특권을 유지하고, 변덕스럽고 열등한 여성이 자신의 정치적 배제를 인정해야만 하는 불평등의 근거로 작용했다.

작품 내 비중 있는 역할로 신여성을 등장시켰다는 점, 여성의 인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토마스 하디가 여성운동에 관심이 있는 작가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역시 19세기를 살았던 남성으로서, 남성 지배문화의 수혜자로서 수와 아라벨라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2. 본론

1) 수를 통해 드러나는 하디의 한계

토마스 하디는 수를 진취적인, 신여성의 상징으로 설정했다. 교원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남성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고 타당하게 펼쳐 왔으며, 제도적 부당함에 대해 소신 있게 저항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그러나, 그녀는 모순적인 인물로서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이 행동의 원인은 하디의 여성주의에 대한 모순에 의한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우선, 그녀는 사회를 상대로 행한 능동적 실천이 없음에 한계가 있다. 주드는 자신의 신분적, 경제적 한계로 인한 대학 진학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학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수는 주드에 비해 편지를 통해 비판과 꾸밈만 드러낼 뿐이다. 결혼에 대한 관습적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편지 속에도 수의 결론은 주드를 결혼식에서 자신을 신랑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수는 필롯슨과 이혼 후 주드와 동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 거부의 입장을 표했지만, 아라벨라의 등장으로 그녀는 충동적인 결혼을 약속한다. 필롯슨과 다시 합쳐지면서 그녀는 모순적이게도 자신이 그렇게 거부해온 결혼을 재결합한지 하루만에 성사하게 된다. 이는 결론적으로 수가 자신이 비판해온 사회 제도에 모두 순응해움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수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수는 필롯슨과 주드에게 거부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끝내 주드의 아이를 가지고, 필롯슨과의 관계를 맺으며 남성에게 성적으로 종속됨을 보여준다.

또한, 하디가 수의 성격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그 모순을 찾을 수 있다. 소설 속에서 그가 수에 대해 ‘아이 같다.’와 ‘신경증적이다.’라는 비유를 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같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생기는 병리적 현상으로 사회학자와 의 학자들이 주로 제시해온 주장이다. 소설 속 인물 설정에 이 주장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하디가 여성의 이성적 판단을 부정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가 여성의 이성을 부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소설 속 사건은 ‘시간 아범과 아이들의 죽음’ 이후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야만인만큼 미신적으로 되어가요! 그러나 누가 무엇이 우리의 적이건 간에 난 겁먹고 행복했어요. 나에게는 이제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말아요. 나는 패했어요, 패했어요!” (토머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민음사, 2013, 262쪽)

‘그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그는 이제 교회 예배에 가끔씩 빠지기 시작했다. 다른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그 비극 이후 수와 자신이 정신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생과 법과 관습과 독단에 관한 견해를 확장시켜 준 사건들이 수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었다.’ (토머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믿음사, 2013, 265쪽)

시간 아범과 자식들의 죽음은 수와 주드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주드는 이성을 추구하며 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만 수는 이성을 잃으며 극단적으로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후유증을 낳은 것이다. 이는 남성은 이성, 여성은 감성이 본질적인 성질이라고 생각해왔던 기존의 관념에 걸맞는 결론이며 여성주의자로 제시되어온 수의 캐릭터가 ‘여성’ 이기 때문에 큰 사건에 감성적으로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여성의 한계를 표명한다.

수의 행동 또한, 눈물이 많고, 변덕스럽고, 끊임없이 남성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가치관을 유일하게 말하는 주드와의 대화 과정 속에서도 “나에게 화가 났군요!” 라던가, 자신을 떠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낸다. 자신을 사랑하지는 말고 좋아만 해달라는 수의 요구에 주드의 표정이 침통해지자 다음날 수는 사과의 편지를 보내온다.

“오빠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런 말을 한 내가 너무 잔인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이 계속 나를 꾸짖고 있어요. 주드 오빠,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오빠 마음대로 하세요. 난 괜찮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은 다시는 안 할게요!” (토머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1,』 믿음사, 2013, 274쪽)

주드에게는 수의 이러한 성격이 ‘모호함’ 과 ‘사랑스러움’ 으로 포장되지만, 결국은 페미니스트인 수 역시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친다’ 라는 사회가 제시한 여성적 특징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디가 여성적 인습을 비판하면서도 오히려 수의 이러한 성격을 사랑스러움으로 치부하면서 더욱 여성성을 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아라벨라를 통해 드러나는 하디의 한계

토마스 하디는 아라벨라를 자신의 섹슈얼함과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허영심 많고 영악한 여인으로 설정했다. 하디는 그녀의 외모를 ‘완전하고 풍만한 암컷이었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서술한다. 이는 그녀를 사회 재생산 역할의 도구로 밖에 보지 않는 시선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라벨라는 자신의 유일한 도구인 성적 매력을 이용해 주드와 결혼과 재혼, 커틀렛과의 결혼, 빌버트와의 내연 관계를 달성한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 달성의 결과는 번번히 실패로 이어진다. 주드와의 첫번째 결혼에서 주드가 돼지를 죽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무능함을 느꼈고, 책만 보고 있는 주드에게 실증을 느끼며 떠난다. 이후의 결혼은 커틀렛의 죽음으로 과부가 되고, 다시 주드와의 재혼에서는 주드가 급격히 병약해져 그의 병수발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아라벨라의 비극은 그녀의 결혼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을 내포하며 결혼 제도가 사랑을 묶어주는 역할이기 보다는 자신의 경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디는 아라벨라가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하여 결혼제도에 남자를 묶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결혼은 아라벨라 자신이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상승 혹은 유지 수단이다. 당시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녀에게 남자와 결혼은 만일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다.

“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내가 가진 땀 한 톨까지 다 빌려 쓰고는 이제 날 집 밖으로 내몰았어요. 다음 직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 게으르다고 마구 퍼부었어요. 나는 세상이 베푸는 자비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주드, 만약 당신이 날 받아들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난 구빈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해야 할지 몰라요.” (토머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민음사, 2013, 312쪽)

19세기 여성의 경제활동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은 덩달아 참정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다. 그러자, 지배계급의 남성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성의 노동범위를 가정으로 축소시키려는 많은 시도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남성들은 경제활동을,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만연한 사회 풍토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여성은 필연적으로 남성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하디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아라벨라 개인의 문제로 이를 치환했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약자 이해 부족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는 여성이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것에 모순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그녀의 통통하고 여성스러운 몸매를 어필하는 모습과 습관적으로 보조개를 만들었다가 푸는 모습을 보며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여성으로서 별 가치가 없다고 서술한다. 이는 이전에 아라벨라와의 데이트에서 그녀가 맥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스킨쉽에 능숙했으며, 무언가 꿩꿩이가 있을 거라는 의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사회에서 제시하는 여성으로서 가치 있는 여성상은 성욕에 대해 무지하고 정절을 지키는 여성이다. 이는 기독교의 절제와 정절을 바탕으로 생겨난 관념으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정속치 못하다고 말하는 등의 도덕성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처녀성에 집착을 하게 되었으며, 처녀 시절동안 자신의 성욕을 억압해야만 했다. 하디는 아라벨라를 시대에서 요구하지 않는 여성상으로 그려내고, 영악한 여인으로 만들었다. 이는 사회의 부조리한 성적 고정 관념을 반영한 하디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결국 하디는 여성 캐릭터를 그려 낼 때, 그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제한을 두는 모습과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을 그려냈다. 이는 작품 내의 여성에 대한 논쟁을 여성의 법적 지위나 교육, 권리의 문제보다 성 문제를 주로 다루며 이마저도 생물학적 본성이라는 남녀의 구별을 전제로 했음에 한계를 낳는다.

3. 결론

이러한 하디의 모습을 보면, 코끼리와 밧줄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린 코끼리가 쇠사슬을 매단 채 커오면 나중에 자신이 충분히 끊을 수 있는 밧줄을 매달더라도 그 밧줄보다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하디 또한, 자신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나 자신이 가진 밧줄의 길이 보단 멀리 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디가 여성이 아니었기에 완벽하게 여성의 부당함에 이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남성인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논리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성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억압하는 경우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한국 역시 페미니즘은 사회의 주요 담론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도 남녀차별의 심각성을 수면위로 띄우며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추세이다. SNS의 발달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글을 올리며 서로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자유로운 담론 분위기 속에서 최근 배우 유아인이 페미니즘에 대해 작성했던 글이 화제이다. 그는 자신의 페미니즘만이 진짜 페미니즘이며 그것이 아니면 그저 유행이라서 따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이라 기준을 세웠다. 또한,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인물은 “부당한 폭도의 무리”라 칭했다. 본래 페미니즘이란 옳고 그름이 없으며 급진과 온건 등의 성격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상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이를 가르치는 말투, 여성주의 사상에 대해 여성이 틀렸다는 주장은 가부장사회 수혜자의 맨스플레인(Mansplain)에 지나지 않는다.

페미니즘이 과열이 되면서 남성들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칭하기 시작했다. 그 중 특정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과격한 미러링을 삼가해라’, ‘이제는 남성혐오 시대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는 여성의 위치 부당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여성들이 자신이 듣기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깎아 내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는 입막음이다.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이러한 입막음 보다는 여성의 부당했던 삶을 들어주는 귀와 손을 모아 함께 싸워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조 문헌

토머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1』 믿음사, 2013

토머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믿음사, 2013

장정희 『토머스 하디와 여성론 비평』 L.I.E, 2007

엠마뉴엘 레이노 『강요된 침묵-억압과 폭력의 남성 지배문화』 책갈피, 2001

권현정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공감, 2003

조앤 W.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앨피, 2006

김미덕 『페미니즘의 검은 오해들』 현실문화, 2016